

# 전남 수출 400억 달러 첫 돌파

## 지난해 31.5% 급증... 수출 비중 전국의 7.2% 7위

전남지역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수출 400억 달러는 2010년 300억 달러를 달성한 지 1년만으로 31.5%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해 울산 다음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으며 수출 비중도 전국의 7.2%로 7위에 올랐다. 전남지역 수출은 2004년 10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7년 2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지난해 총 수출액 중 공산품이 99.3%(397억 달러), 농산품이 0.3%(1억2100만 달러), 수산품이 0.4%(1억

41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 120억 달러로 30.0%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일본 33억 달러(8.2%), 싱가포르 27억 달러(6.8%), 미국 21억 달러(5.2%), 라이베리아 18억 달러(4.3%) 순이며, 상위 10개 국가가 286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71.5%를 차지했다.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 143억 달러, 석유화학 141억 달러, 철강제품 52억 달러, 선박류 42억 달러 등 4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94.6%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은 석유제품 66.

0%, 철강제품 26.5%, 석유화학 18.4%, 선박류 9.3% 등이다. 석유제품 수출이 크게 상승한 것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인상,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물량 증가,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대지진으로 상반기 일본 내 정유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여수·광양산단의 석유와 철강, 영암의 선박 분야가 수출을 주도했으며, 산업별로는 전년에 비해 공산품 31.5%, 농산품 27.5%, 수산품 34.4%의 증가율을 보였다.

박내영 전남도 경제산업국장은 "경제위기 속 400억 달러를 달성한 것은 수출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도 수출 증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수출 증대를 위해 해외 종합마케팅 지원 4억원, 중소기업 제품 수출경쟁력 강화 6억원, 수출 중소기업의 자력 수출능력 제고 2억원, 농수산물 수출확대 사업 17억 등 총 2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1월 무역수지 20억 弗 적자 2년만에 적자로 전환

1월 무역수지가 19억5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1월 적자 이후 지속된 흑자 행진을 마감하고 24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미국의 더딘 경기회복세 속에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무역이 새해 벽두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여 실물과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LED체험홍보관 인기

광주 첨단산단 내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산업전시홍보관'과 에너지관리공단 'LED 체험홍보관'이 지난해 광산업 관계자 및 시민·학생 등 3만3000여명이 방문, 생활 속 LED체험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광주 광관련 기업들이 생산한 1000여 제품이 전시돼 있어 국내의 바이어 마케팅 활동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광산업진흥회 제공>

정부당국은 하지만 작년 연간 무역 규모 1조달러 달성에 닿아있는 연말 밀어내기 수출에 따른 1월 수출물량 감소와 긴 설 연휴로 인한 조업단축, 고유가에 맞물린 원유 도입비용 증가 등이 적자를 초래한 직접적 요인이라며 추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1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415억3700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6.6% 감소했다. 수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09년10월 이래 27개월만이다.

반면 수입은 434억9400만달러로 작년 대비 3.6%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9억5700만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앞서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의 1월 무역수지는 2008년 40억달러, 2009년 38억달러, 2010년 8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1년에만 예외적으로 고가의 선박 인도 등 조선분야 수출호조에 힘입어 25억달러 흑자를 냈다. /연합뉴스

## 건설업 체감 경기 최악

1월 실사지수 62.3... 17개월만에 최저

지난달 건설업계의 체감 경기가 17개월만에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월 건설기업의 경기실사지수(CBSI)가 지난달보다 9.3포인트 내려간 62.3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CBSI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를 비판적으로 보는 기업이 나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지난달 CBSI는 2010년 8월 50.1 이후 1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한달 사이에 9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은 2010년 5월(11.0포인트 하락) 이후 20개월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 청년 전용 창업특례보증 시행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영진)은 미래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 젊은 인재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청년 전용 창업특례보증'을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년 창업특례보증'은 만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업·문화콘텐츠업·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이율 2.7%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제조업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 문의 062-950-0011.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은퇴 50대 중반~60대 중반들 '노후준비 부족'

## 마트·주유소 등 일용직 몰린다

### 제2 일터 복귀 활발

은퇴했거나 은퇴를 준비할 나이가 50대 중반~60대 중반의 경제활동이 오히려 더 활발해진 것은 노후준비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이들은 6·25전쟁 전후에 태어나 70~80년대 산업역군으로 일했고 부모 봉양과 자녀 뒷바라지의 이중 부담을 고스란히 지며 살다가 점차 자신의 노후준비에 소홀했던 세대다.

◇ 노후준비 부족...제2일터로 복귀 = 1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최고연령층인 55~6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작년엔 63.7%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00년 59.5%에서 2005년(60.2%) 60%를 넘었고 2009년 61.8%, 2010년 62.7%에 이어 작년엔 64%에 근접했다.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고연령대의 근로자가 많아져 근로자 평균



연령(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기준)은 2000년 36.2세에서 2010년 39.0세까지 높아졌다.

◇ 마트·주유소 등 임시·일용직 몰려 = 현재 55~64세 연령대는 6·25전쟁의 혼란 속에서 태어나 70~80년대에는 20~40대로서 근대화·산업화를 이끈 세대다. 가부장적 환경에서 자라나 부모 봉양을 당연시하고 자식을 대학에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일선 현장

에서 묵묵히 일해온 지금의 부모들이다.

환란을 겪을 때는 자녀가 대학생에 다닐 시기여서 힘들게 살아온 세대이기도 하다.

노동 사이클상 최근에는 평생직장을 떠나거나 조금씩 책임 정리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다.

그러나 이들은 쉬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 일터를 찾아 떠나고 있다. 청년들도 취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고령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허락되지 않아 비정규직이나 한시적인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다. 자녀 교육을 마친 50~60대 여성은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일하고 남성은 주유소 직원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생계형 창업에 나서기도 하지만 정보가 발 빠르게 못하고 새로운 영업 형태를 쫓아가기 어려워 이마저도 오래 지속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생계형 창업에 나서기도 하지만 정보가 발 빠르게 못하고 새로운 영업 형태를 쫓아가기 어려워 이마저도 오래 지속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50대 여성의 경우는 2008년부터 더 생활전선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생산은 줄고 재고는 쌓이고

## 지역경제 짙은 먹구름

### 호남통계청 조사

생산은 줄고 재고는 쌓이고... 지역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지난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12월 광주·전남지역 광공업 생산 동향' 조사 결과, 광주지역의 12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 같은 달보다 6.8% 감소했다. 지난 10월 -8.8, 11월 -4.9에 이어 석달 연속 감소세다.

주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33.2), 기계장비(-12.2), 자동차(-3.0) 부문 등에서 감소했고, 음료(42.2), 비금속광물(27.0), 의류정밀광학(70.4) 등이 증가했다.

생산이 줄면서 제품 출하도 전년 같은 달보다 2.6% 감소했다. 반면 재고는 8.9% 늘어났다.

재고가 쌓이면서 공장 가동률은 떨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 107개를 대상으로 발인 '2011년 12월 중생산업체 평균가동률 조사' 결과, 지역 중소 제조업체 평균가동률은 71.6%로 전달(71.7%)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정상가동률 80%에 미치지 못하고 전국 평균가동률 72.1%보다 0.5%포인트 낮다.

지역별로 광주는 72.4%로 전달(72.3%)보다 0.1%포인트 상승했고, 전남은 70.8%로 전달(71.2%)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이 같은 가동률 하락 추세는 대외적으로 국제적 금융위기와 유가 상승, 국내적으로는 지역 일부 대기업의 납품물량 감소, 내수부진, 소비심리지수 하락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최근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 조사에서도 경기 악화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광주지역의 건축허가면적은 10만3000㎡로 전년 같은 달보다 58.3% 크게 줄었다.

또 지난해 소비재물가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주택·수도·전기·연료, 의류·신발 등이 올라 지난해보다 4.2% 상승했다. 실업률도 2.0%에서 2.2%로 올라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59.24 (+3.45)
▲ 코스닥지수	519.25 (+5.26)
▼ 금리 (국고채 3년)	3.37% (-0.01)
▲ 원·달러 환율	1126.30원 (+3.0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 영암효요양병원

##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자식된 마음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진료과목**

- 내과/외과/한방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

**진료 대상자**

- 근골격계질환자
- 호흡기계질환자
- 뇌졸중질환자
- 각종 암 환자
- 기타

**진료 대상자**

- 양·한방 외래 및 입원치료 (협진)
- 대학병원 및 3차 의료기관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
- 전문 간호인력 및 간병사의 24시간 간호 처치 제공
-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를 위한 집중 치료실 운영
- 뇌졸중·치매 노인 노인성 질환 전문 치료 서비스
- 전문요양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영암효요양병원**

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 308번지  
전화 (061)471-6888-9 팩스 (061)471-6890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841-14번지  
전화 (061)542-3004-5 팩스 (061)542-3005

찾아오시는길

영암효요양병원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